

濟州島 海村生活의 調查研究 (II)

— 信 仰 部 門 —

玄 容 駿

차 례

- | | |
|-------------|---------------|
| 1. 村民의 信仰構造 | 2) 巫俗과 村民의 經濟 |
| 2. 祭 儀 | 4) 巫 覡 |
| 1) 儒式祭儀 | 1) 巫覡의 社會生活 |
| 2) 巫式祭儀 | 2) 巫覡의 婚姻 |
| 3. 巫俗의 機能 | 綜 合 |
| 1) 信仰實態分析 | |

本稿는 濟州島 民俗誌 作成을 위하여 調查한, 濟州島 海村의 生活構造 調查의 둘째번 報告이다.

그 첫번째 報告는 제주대학 논문집 제2집(近刊予定)에 發表될 것이다. 거기에는 村落의 概觀, 村民의 構成, 家族關係 및 親族, 村落의 組織 등이 報告되어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 報告하는 信仰部門을 社會構造面에 連關시켜 理解하는 데는 前稿의 參照가 必要하다.

本調查는 濟州島의 典型的인 海村의 하나인 北濟州郡 朝天面 北村里 本洞(250家口)과 都會性을 띠어가는 海村인 濟州市 龍潭洞(동한두기)(95家口)를 對象으로 하여 1967年 8月부터 1968年 5月 사이에 現地 調查한 것이다.

1. 村民의 信仰構造

北村과 龍潭, 두 村民들은 무슨 宗教를 어느만큼 信仰하고 있는가, 그 實態부터 보기로 하자.

이런 調查에서 얻은 바, 公認된 既成 宗教를 信仰하는 世帶는 北村이 250世帶中 27世帶로서 10.8%이고, 龍潭은 95世帶中 24世帶로서 25.3%

었다. 그러나 都合 全世帶의 14.4%가 正式 既成宗教를 信仰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 內容을 보면 佛教信仰 世帶가 都合 12.2%로서 가장 많고, 天主教가 다음으로 1.7%, 天理教가 0.6%, 天地大安教가 0.3%로서 가장 적다.

龍潭의 佛教信仰 世帶가 20%나 되게 많은 것은 그 동네에 寺院(龍華寺)가 있기 때문인 것이며, 北村에는 寺院이 없어, 이웃마을 威德里의 절간에 16世帶, 朝天前 新村리의 절간에 7世帶가 다니고 있고, 天主教信徒는 모두 濟州市의 教會에 다니며, 天地大安教는 舊左面 終遠리에 있는 寺院엔 다닌다. 이처럼 村落에 寺院의 有無가 그 信仰世帶數에 相當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 이 既成宗教 信仰層의 屬性을 理解키 위하여 信仰世帶主의 性別 및 平均年令을 보면 北村의 경우는 男 8, 女 19라는 현격한 차이로 女子世帶主들이 既成宗教에 歸依하고 있고, 龍潭은 反對로 男世帶主가 약간 많으나, 全体的으로 보면 男 22, 女 29로서 女世帶主가 많다.

그리고 平均 年令으로 보면 男世帶主는 53歲 女世帶主는 61歲이다.

한편 이들 信仰世帶主의 教育程度를 보면 就學者가 16, 無學者가 35이며 就學者 16名中 女子世帶主는 不過 3名뿐이요, 全体的으로 高卒 以上은 3名 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宗教가 主로 無學者들의 歸依處가 되고 있고, 특히 無識한 女子, 더구나 老女層의 歸依處가 되고 있음을 發見하게 된다. 이 경향은 佛教에 더욱 甚하고, 天主教에 比較的 젊은 男子層이 모이고 있음을 아울러 알게 한다.

다음은 이들의 信仰態度를 보기로 한다. 그들의 宗教信仰態度가 어떤 것인가를 形式的으로 立證하는 데는 그들의 巫俗行事 舉行 與否를 보는 것이 좋으리라 본다.

그래서 兩里의 宗教信仰世帶의 巫俗行事 與否를 調査한 바, 佛教信仰世帶는 北村에서 73.9%, 龍潭에서 89.5%가 巫俗行事를 하여, 都合 81%가

巫俗行事を 하였고, 天理教信仰世帶는 50%가 巫俗行事を 一年間에 하였다. 이 行事率을 巫俗行事的 要因인 吉凶事와 對比해 볼때, 吉凶事가 적었으니 이런 %가 나타난 것이지, 그 要因이 달라지면 그 %도 달라졌을 것임을 能히 推測할 수 있다.

또 天地大安教 信仰世帶도 마찬가지다. 그 世帶엔 巫俗行事的 要因이 없었기에 行事を 안한 것이지, 要因만 있었다면 巫俗行事を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고 보면, 天主教를 除外한 모든 宗教—佛敎, 天理教, 天地大安敎의 信仰民의 信仰態度는 巫俗과 똑같이 功利的이요, 土俗的이며 巫俗信仰과 同軌의 것이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도 巫俗信仰層에 包含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所謂 無宗教라는 住民들의 신앙을 보면 男女別의 二重構造를 볼 수 있다. 男性들은 儒敎의 崇祖思想에서 喪禮 忌祭 節祭 墓祭 儒式村祭(甬祭)등의 嚴肅한 舉行을 通하여 그들의 宗教心性을 依支하고, 女性들은 이들 祭禮의 準備를 차려 行祭를 지켜보면서도 이에 充足하지 못하고 巫俗의 行事を 따로 하여 依支하고 있는 것이다.

男性들은 이 巫俗行事に 半信半疑의 態度로 女性들의 信仰行爲라 하여 默認, 傍觀하고, 女性들은 儒敎의 崇祖祭禮를 하는 한편 巫俗行事を 하더라도 心的 龜裂이 없이 마치 同根源의 것처럼 신앙하여 儀禮한다.

따라서 이들 村落의 信仰構造는 男女兩性의 儒巫二重構造를 이루고 있었음과 同時에, 公認宗教信仰層도 거의 無속을 複合信仰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 ① 儒+巫 信仰層
- ② 佛+巫 信仰層
- ③ 其他宗教+巫 信仰層
- ④ 其他 既成宗教 信仰層

이들 各 信仰層에서 巫俗信仰과 關係없는 既成宗教信仰層은 不過 1.8%

밖에 되지 않고 巫俗信仰과 複合된 信仰層이 98.2%나 된다는 점에 이 村落社會의 信仰構造의 特色이 있고 焦點이 있는 것이다.

2. 祭 儀

이 村落의 所謂無宗教의 家口들은 男性儒敎, 女性巫俗의 二重的 信仰構造를 이루고 있음을 이미 말했었다. 그러면 實際로 어떤 祭儀들이 어떤 形式으로 實修되고 있는가를 여기서 보기로 한다.

이들 村落의 祭儀들은 크게 儒式祭儀와 巫式祭儀로 나누어 봄이 좋겠다. 前者는 男性들이 主管하는 것이요, 後者는 主로 女性들의 것이다.

儒式祭儀는 다시 家祭와 村祭로 區分할 수 있다. 家祭란 崇祖 및 家口의 繁榮招福을 위하여 家屋內에서나 墓所에서 行하는 祭儀로서 參禮範圍가 家口員이나 親族에 限하는 것이며, 村祭란 村落의 辟邪進慶을 위하여 村民共同으로 一定한 村內祭場에서 行하는 祭儀를 말한다. -

家祭는 그 性格上 崇祖祭와 土神祭로 나눌 수 있으며, 村祭는 이른바 甬祭이다.

巫式祭儀도 亦是 家祭와 村祭로 나누어 봄이 좋다. 巫式家祭는 그 目的이나 機會로 보아 祈子, 出生, 長壽進慶, 撫魂, 疾病治療, 豐漁進慶, 新年進慶, 新築, 造船豐漁, 運輸進慶, 豫祝進慶, 豫祝撫魂등을 위한 儀禮를 行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形式的으로 보면 굿과 비넴으로 나누이는데 굿에는 큰 굿과 작은 굿이 있다. (註4)

巫式村祭는 이른바 당굿인데, 北村에서는 新過歲祭, 영동굿, 백중굿, 계락등을 굿 形式으로 하나, 龍潭은 몇년에 한번씩 굿을 하는 程度이고, 普通은 家戶마다 個別的으로 神房(巫覡)을 빌어 당에 가서 祝願(비넴)하고 있다.

以上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儒式祭儀	{	家 祭	{	崇祖祭
		村 祭		土神祭

巫式祭儀 家・祭 祈子, 出生, 長壽進慶, 撫魂, 治病, 豐漁進慶, 新年進慶, 新築, 造船, 運輸進慶, 豫祝進慶, 豫祝撫魂
 村 祭—당굿…新過歲祭, 영등굿, 백중굿, 계탁

그러면 以上の 祭儀들의 모습을 좀 詳細히 보기로 하자.

1) 儒式祭儀

① 崇祖祭 儒式祭儀의 崇祖祭는 忌祭, 節祭, 墓祭등이 있는데, 그 中 節祭는 前에는 四大名節을 全部해 오다가, 近來는 寒食과 端午가 거의 없 어지고 설과 秋夕만을 躑躑마다 지낸다.

이들 祭法에는 別特徵이 없어 省略하지만 다음의 두가지만을 指摘해 두 고자 한다. 이것은 全島 共通의인 것인데, 家內의 祭禮에는 반드시 門祭를 지내는 것과, 野外의 祭禮에는 반드시 土神祭를 지내는 것이다.

門祭는 一名 門前祭라고도 하는데, 濟州特有의 門神<문전>에게 올리는 祭儀다. 祖靈에게 祭儀를 하기 前에 먼저 자그만 床에 祭물을 차려 上房(마루방)의 앞쪽 문앞에 갖다 놓고 이 門祭를 지낸 다음, 祖靈에 대한 祭儀를 지내는 것이다. 行祭順序는 參神 獻爵 插匙 徹匙 徹 의 간단한 것인데, 이 行祭가 끝나면 門祭床은 부엌의 婦人에게로 넘겨지고, 婦人은 이 床의 祭물을 各各 조금씩 모두 그릇에 걸어놓고 부뚜막에 떠 던진다. 이것은 竈神에게 告祀지내는 것이다. 이 祭法은 本來門神의 妻가 竈神이라는 무속신화 <문전본풀이>에 근거해서 하는 무속적 門神告祀가 儒式祭儀에 殘存하여 形式이 儒式化한 것이다.⁶⁾

墓祭 初虞祭등 墓所의 祭儀때에 하는 土神祭는 普通<산제>라고 일컫고 있는데, 이 祭儀도 祖靈에 대해 行祭하기 前에 한다. 이 祭儀는 그 墓所가 있는 土地를 管掌하고 있는 神에게 올리는 祭의로서 紙榜은 土地之神位이다

② 土神祭 儒式家祭인 土神祭도 지방은 土地之神位인데 普通은 산제라고 말한다.

이 祭儀는 新年의 家内の 辟邪進慶을 豫祝하는 祭儀로서 舊正初에 吉日을擇하여 동네의 有識한 男子를 祭官으로 빌어다 한다. 祭官은 醜託을 맡으면 三日 精誠을 해야하며, 祭家에서는 三日前부터 금줄(禁繩-원세끼)를 매어 不淨人의 出入을 禁한다.

行祭日의 深夜가 되면 祭官은 울타리안의 淨潔한 곳을 택하여 祭床을 掛設하는데, 白飯 粟飯 떡 五色實果 明太魚 菜類및 닭犧牲 幣帛등을 울리고 橫拜四拜로써 行祭한다. 天祭이기 까닭에 橫拜를 한다 한다.

이때 告하는 祝文의 一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維歲次 年 月 日 宅主 某 齊戒謹誠(使幼學 某)
敢昭告于

土地之神 伏以(宅主姓名) 於赫明神 鎮我基域 災致祥 匪今自昔 今擇良吉 敢竭微誠 戶下家率 永無疾病 年厄月厄 日厄時厄 諸雜疾病 一併消滅 摠登春台 皆歸壽域 牛馬病疫 遠驅山谷 五穀豐 乃倉乃積 載薦明庶 幾孚格 謹以牲幣 齊 盛 庶品式陳明薦于神尚

饗

이 祝文의 內容으로 보아 巫俗新年제인 <명감> <칠같이> <액막지>등과 그 目的이 같은 것인데, 形式이 儒式祭法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醜祭 儒式村祭인 醜祭는 島內 各 村里마다 거의 行해지고 있는 村祭다. 이 제의의 對象은 醜神, 里社神, 守土神, 土地神등 部落마다 달리 불리우고 있고, 그 제명도 醜祭, 동넛제, 거릿제, 里社祭등 여러가지로 불리우고 있는 것이다.

龍潭과 북촌의 이 촌제를 보면 북촌에 比해 龍潭이 훨씬 單純하고 儒式的이다.

龍潭에선 그 제명을 <醜祭> 또는 <동넛제>라 부르며 祭神은 <醜神之位>하나다. 祭場은 동네 南쪽 언덕에 있는 <醜祭壇>인데, 이 제단은 10余坪 넓이의 空地에 울타리를 네모로 쌓고 盤石으로 壇을 만들어 놓은 것이

다. 祭日은 陰正月 上丁日 또는 亥日의 子時. 祭官은 有志 男性들로서 初獻, 亞獻, 終獻, 執禮, 大祝, 贊者, 鬻者, 奉香, 奉爐, 司樽, 奉爵, 奠爵 등 12제관이 鄉校의 釋奠祭와 같이 유식 제법에 依해 行한다. 祭次는 奠幣禮, 初獻禮, 讀祝, 亞獻禮, 終獻禮, 飲福, 掇籩豆, 焚幣의 順으로 酬神에 祭의 한 번의 제의로써 끝이 난다. 祭物도 釋奠時와 大同하고 祭享費는 寄附 또는 촌민의 收歛金으로 充當된다.

북촌의 境遇도 그 祭名이나 祭일은 같다. 그러나, 祭神이나 祭次, 또는 祭享費 調達方法등에 顯著한 차이가 있다. 북촌에서는 萬余원의 祭享費 마련을 위하여 북촌과 東福里의 境界쪽 約 200m幅의 海岸(俗稱 소느리알, 내시빌레)을 북촌 1, 2, 3洞에서 順番制로 管理를 한다. 管理를 맡은 洞에선 共同作業으로 天草 風藥등을 收獲하여 販賣하든지, 그 採取權을 팔든지 하는데, 그러면 萬余원의 收入이 생긴다. 이 돈을 貸付 增殖하여 다음해의 酬祭 經費를 鄉會에 내어놓고, 殘額은 洞經費로 쓴다.

鄉會는 舊正月初에 里長의 仲介로 召集되며, 이 자리에서 鄉長과 祭官과 任員이 選出된다. 祭의의 準備問題나 洞의 重要한 일이 이 鄉會에서 討議된다.

祭官은 龍潭과 같이 12제관. 이들은 洞內 넓은 집을 祭청으로 정하고 祭日 3日前에 이 祭청에 合宿 齋戒한다. 祭場은 마을의 남쪽 約 1km 地点 松林間에 있는데, 半月形의 돌을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壇을 만들어 놓아 있다. 이것이 上壇으로 本祭를 지내는 祭壇이며, 그 옆에 다시 자그마한 盤石의 祭壇을 만들어 놓았으니, 이것이 下壇이다. 그리고 그 아랫쪽에 單間草家집을 지어 놓았는데, 이것은 行祭하러간 祭官들이 머무는 곳이다.

祭日날 저녁 밤이 깊어가면 祭는 먼저 本鄉堂에의 祭의부터 시작된다. 이 巫社部落祭堂인 本鄉堂엔 小祭官들 몇이 祭物을 들고 가서 麥3, 시루떡 3, 편3, 實果 鷄卵등을 陳設하고 單獻 單爵으로 간단한 儀禮를 한다. 그리고는 祭物들을 등에 져서 祭壇을 향하여 밤길을 올라간다.

子時가 당하면 于先 상단에 제물을 陳設하여 行祭한다. 제물은 돼지 3, 돼지 犧牲 1, 生鰻, 미역채 1, 미나리채 1, 乾魚, 청목 1, 鰾 3, 시루떡 3, 五果등을 올린다. 이 상단의 제신은 醮神之位로서 龍潭의 경우와 같이 12계관이 모두 참례하여 正規의 유식제법으로 행제한다.

이때의 祝文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云云 北村里民 代表 初獻官 某敢昭告于

醮神之靈 於赫明神 盛矣其德 繁我民物 實賴丕極 爰及月正 深誠差穀 物雖不腆 誠則靡感 恭唯明靈 普施陰陽 弭災招祥 轉禍爲吉 扇以和氣 屏彼妖人人壽福 家家安樂 豐厥百穀 蕃其六畜 漁採隆盛 船舶利涉 瘟瘡疫疫驅 逐俾我一鄉 均蒙嘉澤 敢竭鄙誠 薦以菲薄 神其洋洋 庶幾歆格 謹以香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于神尚

饗

상단제가 끝나면 다시 하단에 제물을 陳設하고 하단제를 지낸다. 하단의 제신은 <諸神之位>. 제물은 상단제와 같되 돼지 犧牲이 닭 犧牲으로 바뀌며 계관은 상단제때의 亞獻官이 혼자 獻官이되며 大祝과 執事が 補佐한다. 상단제에서는 獻官들이 橫拜로서 행제하는데 여기서는 直拜로서 하며 獻爵도 잔대하나에 술잔 셋을 놓아 올리고 撥蓬笠도 상단제와 달리 곱 제물을 조금씩 술잔에 떠놓아서 제단옆 땅에 붓는다.

하단제의 祝文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云云 初獻官 某 敢昭告于

諸神之靈 幽顯殊塗 有誠必格 肆予將用 自古在昔 恭唯群靈 諸狀不一 無主而餒 有寃斯結 或傷水火 或依木石 爲瘟爲 爲瘡爲疫 嘯風啼雨 倏忽莫測 匪命橫厄 亦可傷 茲以消吉 薦此菲薄 提丕明傳 來歆來格 醉所飽斯 解丕飢渴 飲妖藏恠 默垂冥臨 勿侵人民 勿害駒犢 扇以和氣 賜我康樂 俾此一鄉 終歲之吉 謹以消酌 庶品恭神 奠獻尚

饗

하단제가 끝나면 그 單間草家에서 제관들이 모여 앉아 돼지물 삶아 飲
福을 하고 마을로 내려온다. 이 때는 이미 밝을녘이 된다.

제관들이 마을에 내려오면 곧 마을의 鄉舍자리로 간다. 여기서 다시〈都
廳祭〉를 지내는 것이다. 제신은 〈都廳之神位〉. 이제는 상단제때의 終獻官
이 獻官이 되어 大祝과 執事와 더불어 행제하며, 제물과 제법은 하단제와
大同하다.

이 都廳祭는 1948年 4·3 共匪暴動 事件前까지는 巫覡(神房)에 依하여
〈도청굿〉을 巫式으로 하여 왔었는데, 그 後 이와같이 포제때 곁들여 儒式
으로 지내온 것이라 한다.

都廳祭 祝文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云云 某 敢昭告于

都廳之神 自有茲土 有民有神 神民相依 治千百年 民之生 安樂於此 其
孰不曰 神之所賜 爰及新正 致誠 感 惟願神明 垂以陰蔭 我一鄉 均蒙
惠澤 謹以香幣 醑齊粢盛 庶品式陳 明薦于神尚

饗

이 外의 部落제로도 1945年 解放前까지는 巫覡(神房)에 依하여 巫式으
로 執行되던 〈거릿제〉가 있었다. 解放後엔 이 거릿제가 儒式으로 變하여
〈街神之靈位〉라는 紙榜을 써 붙여 儒式部落祭로 해오다가 1948年 4·3 共匪
暴動事件後 없어졌다 한다.

以上 儒式村祭인 醑祭를 보아 왔거니와, 北村의 이 儒式村祭는 相當히
巫俗性 乃至 土俗性이 짙다는 것을 곧 지적할 수 있다. 上壇祭인 포신제
는 全道 一般의인 것이지만 下壇祭인 諸神祭는 雜鬼에 대한 祭儀이며, 本
鄉神에의 告祀나 都廳祭등은 祭神에 대한 巫式祭儀가 儒式化한 것이다.
또 그 祭物類가 他洞과 달리 청묵, 시루떡, 편등·익힌 음식을 올리는 것
이나 헌작을 3盞으로 하는 것등 모두 巫式的인 것이다. 이에서 男性의 儒
教信仰도 儒巫混 의 것임

2, 巫式祭儀

다음은 巫式祭儀들을 보기로 한다.

① 祈子儀式 子息이 없는 이가 子息을 접지해 주도록 祝願하는 곳으로 서 <불도맞이>라 한다. 對象神은 <삼승할망> 또는 <불도할마님>, <맹진국할마님>이라 하는 產神. 祭次는 <초감제> <친제받아수목드림>, <할망질침>, <서친꽃밭질침> <꽃맞이>, <각도비님>, <도진>의 順으로 해 나가며 所要時間은 하루가 조금 넘는다.

② 出生儀式 産後 3日, 7日, 百日 肅등에 無病養育을 產神께 비는 간단한 儀禮로 보통 <아기비님>이라 한다.

③ 撫魂儀式 <리양풀이> <시왕맞이> <요왕맞이>등 셋이 있다.

<리양풀이>는 葬事날 저녁 神房으로 하여금 간단히 死靈을 慰撫하는 儀式이고, <시왕맞이>는 3日間이나 所要하는 큰 곳으로 死靈의 저승길을 치워달라 보내는 複雜한 祭次의 곳이며, <요왕맞이>는 溺死魂의 慰撫儀禮로 2日間이 所要된다.

④ 治病儀式 幼兒의 治病을 產神께 간단히 비는 <아기비님>, 크게 놀라거나 넘어져거나 했을 때 肉體에서 離脫한 魂을 불러들여 治病하는 <넋들임>, 產神과 對面한 <구살삼할망>의 犯接으로 앓을 病을 治療하는 <구살삼할망>, 雜鬼의 犯接을 避하여 治病하는 <푸다시>, 精神異常을 治療하는 <부인>, 疔을 죽여 앓은 病을 治療하는 <칠성세남>등 原因에 따라 다른 儀禮를 한다.

⑤ 豐漁進慶儀式 豐漁 또는 海外에 가 있는 家族의 進慶을 龍神께 祝願하는 <요왕제>가 있다. 1時間程度 所要.

⑥ 造船豐漁儀式 漁船의 新造時, 또는 멀리 漁撈를 나갈때 大規模로 배 뒤에서 儀禮하는 <연신>이 있다. 3·4時間程度 所要.

⑦ 新築儀式 家屋新築時 하는 <성주풀이>로 3·4時間程度 所要된다.

⑧ 運輸進慶儀式 自動車를 갖은 집에서 無事故를 祝願하는 儀禮로, 豚

頭등 제물을 運轉台에 올리고 <기계하르바님, 기계할마님>께 간단히 祝願 한다.

⑨ 長壽進慶儀式 特別히 北斗七星의 守護를 타고난 사람이 七星께 長壽進慶을 祝願하는 七星祭가 있다.

⑩ 新年進慶儀式 新年의 辟邪進慶을 비는 儀禮로 <철갈이>와 <맹감>이 있다. 北村에서는 모두 <철갈이>를 하고 龍潭에서는 <맹감>을 한다. <철갈이>는 新年初에 뿐 아니라 四時節이 바꿀때마다 언제든지 한번은 하는 進慶儀禮요, <맹감>은 新年初에만 進慶을 비는 儀禮다.

⑪ 豫祝進慶儀式 굿을 해야할 不得已한 要因이 없이 몇 年에 한번씩 豫祝의으로 굿을 하는 것이다. 龍潭에서 있는 <큰굿>과 <액맥이>가 그것이고, 北村의 <돛제>도 또한 그런 것이다.

⑫ 豫祝撫魂儀式 죽기前에 미리 自己의 撫魂儀禮를 해두는 것. 이를 <호강굿>이라 한다.

⑬ 당굿 村落守護神인 本郷堂神에게 村落共同으로 하는 巫俗部落祭이다. 龍潭에는 堂이 하나 있고 北村에는 당이 셋이 있다. 용담에서는 數年에 한번씩 有故時에만 당굿을 해서 本 調査期間에는 당굿이 없이, 各家戶別로 神房을 빌어다 측원하고 있었으나, 北村에는 村落全体로 당굿을 열고 있었다. 그 堂과 職能祭日등을 보면 <表6-5>와 같다.

<表6-5> 堂 一 覽

里別	堂 名	神 名	職 能	祭日祭名	其 他
北村	가릿당 (本郷)	○구지모를 노보름 한집	生産 物故 戶籍 皮膚 病 育兒 海女 漁船	1.14 과세문안	12월末日계 탁이없어집
		○구지모를 용녀부인		2.13 영등제	
				7.14 맥중제 12.末日 계탁	
	당팃당	당팃하르방 당팃할당	漁業	漁船新造時告祀	祭需豚肉골
	동카름당	동카름 정잇배 삼대왕	海女	12월末日 계탁 1.1 대변술력 1.2 배구	現在모든祭 가없어졌음
龍潭	모스락당 (本郷)	○용여국대부인 ○여리불도 ○제석 ○삼덕조왕	生産 物故 擇日 戶籍 漁船 海女		1年3·4回式 個別 儀禮를 行함

北村 本郷堂에는 現在 年3回の 당굿을 하고 있는 것이다. 陰 1月14日の 堂祭는 괴세문안(過歲問安) 또는 新過歲祭라 하여, 新年의 村民의 進慶을 祝원하는 祭이고, 陰 2月 13日の 당굿은 <영등계> 또는 <영등굿>이라 하여 海女 및 漁夫들의 豐漁를 祝원하는 굿이며, 陰 7月 14日の <백중계>는 牛馬의 増殖繁盛을 祝원하는 祭이다. 12月末의 <계탁>祭는 送年感謝祭의 性格의 것인데 지금은 없어졌다.

이들 당굿中 가장 盛大히 하는 것은 2月 13日の 영등굿이다.

新過歲祭의 參祀民은 村民의 半程度, 영등계에는 거의 全家戶가, 백중굿에는 牛馬를 기르는 家戶에서만 參祀한다.

당굿의 經費는, 新過歲祭는 里資金에서 내어주는 돈 3~4千원으로 準備하며, 영등계는 潛嫂會費로써 充當하고 백중굿은 各家戶에서 차려온 계물만으로 간단히 祝원한다.

굿의 모든 準備와 管理는 潛嫂會 幹部들이 하며 그 準備物 및 祭次는 영등굿 때와 大同하다. 卽 영등굿의 모든 祭次에서 海女採取物의 播種儀禮 <씨드림> 및 <요왕맞이> <배방선> 등이 없는 祭儀形體다. (영등굿의 祭次는 具體的인 祭儀 모습은 拙考 濟州島의 영등굿, 韓國民俗學創刊號 PP. 117~135參照)

○ 堂神 北村里 男巫 朴仁洙氏가 口誦하는 北村本郷堂 본풀이(神話)에 依하면 이 마을의 本郷神은 저 舊左面 松堂里 堂神<금백주>의 아홉째 아들이라 한다. 이름은 <구지모를 노보름한집>. <구지모를>은 이 堂이 있는 곳의 地名이요, <노보름>은 北北東風이며, <한집>은 本郷堂神의 尊稱이다. 따라서 당이 北北東風을 향하여 位置해 있다 하여 그 地名을 곁붙여 <구지모를 노보름한집>이라 한다고 한다. 事實 이 당엔 昭和 8年 癸酉 正月 甲寅 26日 丙午時 立柱上樑改造라 쓰인 당집이 있는데 그 집은 北北東面으로 앉아 있다. 神話에 依하면 이 <구지모를 노보름한집>은 漢軍 靈山 五百將軍의 命을 받아 北村을 繁榮시키려고 내려와 며칠을 앉아 지다 못했으나, 누구 한사람 迎接하질 않으므로 風雲造化를 일으켜 이른에겐 急

症, 아이에겐 驚症을 주자, 그제야 村民들이 必有曲折이라 하여 이 神을 찾고 崇仰하기 시작했다 한다. 처음 뵈었을 때의 神의 모습은 鳳眼을 부릅뜨고 三角鬚를 거스르고, 의울 網巾에 큰 갓을 쓰고, 直領道袍를 입어 五行八卦를 손에 쥔 武官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村民들이 謝罪를 하자, 神은 거뜬히 용서를 하고 1月 14日, 2月 13日, 7月 14日, 12月 末日에 各 祭를 지내도록 指示를 하고 이 堂에 坐定하여 堂神이 되었다 한다.

또 이 마을의 <당괘당>의 <당괘하르방> <당괘할망> 神은 龍王皇帝國의 사위와 딸인데, 不良하기 때문에 여기에 流配되었다고 神話된다. 용왕이 사위를 流配시킬 때에 이 마을의 本鄉堂神에게 便紙를 하여 本鄉堂神 밑에서 漁船을 管掌하여 豐漁를 위한 告祀를 받아 먹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도 造船時 이 堂에 가서 告祀를 한다고 한다.

다음, 北村의 <동카름당>엔 그 堂神이 坐定한 由來를 說明한 神話가 없고, 지금 모든 祭가 없어졌다. <동카름>이란 東洞이란 뜻인데, 생각컨대 北村東洞民의 崇仰하던 堂이었는데 이 洞民들이 本鄉堂인 <가릿당>으로 崇仰을 集中시켜 버려 祭儀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용담의 本鄉堂인 <고스락당>엔 神名만이 傳하고 그 坐定來歷을 說明하는 神話는 없다. 여기의 主神은 <龍女國大夫人>即 용녀인데, 거기에 덧 붙여 產神인 <여리불도 (如來佛道)>와 農神인 <帝釋>, 그리고 竈神인 <삼덕 조왕>이 더불어 모셔지고 있다. 이 產神, 農神, 竈神은 一般神인데, 이 마을에선 一時에 合同으로 祭儀를 하는 便宜를 위해 같이 모셔 놓고 있는 것이다.

北村의 <가릿당>을 除外하면 모두 당집이 없이 老木앞에 제단을 만들고 울타리를 쌓아 놓은 形態의 堂이다.

이 兩村의 堂神을 보면 共通한 것은 龍女夫人등 海洋關係의 神이요, 그 職能이 漁船海女등 漁業關係를 守護한다는 點이다. 亦是 海村의 生業과 그 宗教의 有關性을 말해주는 것이다.

3. 巫俗의 機能

巫俗은 女性들의 信仰이라는 點, 그리고 漁業이라는 生業的 條件이 巫俗儀禮를 盛大케 한다는 點들을 이미 指摘한바 있거니와, 本項에서는 좀더 나아가 兩 촌락의 巫俗信仰및 行事가 얼마만큼한 것이며, 그것이 人的, 經濟的, 生業的 面等과 어떤 關係에 있는 가를 分析하고, 또 촌민의 經濟的 面에의 영향등 村落生活과의 關係를 밝혀 보고자 한다.

① 信仰實態 分析

이미 밝힌 바와 같이, 兩 村落의 巫俗的 信仰世帶가 98.2%, 非巫俗的 信仰世帶가 1.8%라는 率이 나타났으니, 이미 그 輪廓이 들어나 버린 것이지만, 이 98.2%라는 世帶는 <巫俗的>인 것이지, 반드시 이 1年間에 巫俗行事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들은 1年동안에 얼마만큼 어떤 要因에서 巫俗行事를 했는가?

이 두 촌락에서 1966年 9月에서 부터 1967年 8月 까지 1年間에 북촌에선 70%, 웅담에선 63%의 世帶가 巫俗行事를 했다. 總體的으로 68%의 世帶가 巫俗行事를 한 셈인데, 이 行事를 目的別로 보면 많이 行해지는 儀禮는 堂儀禮 (216件), 新年進慶儀禮 (201件), 治病儀禮 (35件), 造船豐漁儀禮 (33件)등이며, 要因別로 보아 行事率이 높은 것은 造船豐漁儀禮 (99%), 治病儀禮(93%), 新築儀禮 (67%), 運輸進慶儀禮 (67%), 당굿參祀(62%) 死亡撫魂儀禮 (60%)의 順이다.

이러한 巫俗行事 世帶를 世帶主의 性別로 分析하여 보면 男世帶主 世帶가 71%, 女世帶主 世帶가 66%로서 무속이 男性의 關與를 크게 받지 않은 女性의 信仰임을 말해주며, 生活程度別 巫俗行事率은 上層이 86%, 中層이 70%, 下層이 54%로서 生活程度가 높을수록 行事率이 높다.

그리고, 무속이 女性社會의 信仰이라 볼때, 女性들의 年令階層과 行事率의 關係가 깊을 것이니, 그것을 보면 50代 86%, 40代가 76%, 60代 및

30代가 68%의 順으로 高齡일수록 高率을 보여주고, 또 各 世帶의 最高令 女性의 學歷別 巫俗行事率을 보면 中卒世帶行事率 38%, 國卒56%, 無學 72%로 學歷이 낮을수록 그 率이 높다. (以上 具體的인 統計的 分析은 拙考 濟州島 海村의 巫俗信仰實態, 濟州도 34호 PP, 192~206參照)

以上을 綜合하고 보면 첫째 巫俗은 女性社會의 信仰으로서 男子들의 干與를 크게 받지않은 獨自的 信仰이라는 것이요,

둘째, 海村家口의 68%가 年間 의례행사를 하는 絕對的 比重의 태촌설 양이며,

셋째, 疾病, 死亡등 人生苦와 造船, 新築등 大事, 그리고 漁業, 車運轉과 같은 위태로운 職業이 의례행사의 要因이 되고 있고,

넷째, 巫俗行事는 家庭의 經濟的 余裕와 女性의 年令에 比例하고, 女性의 學歷에 反比例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現在 濟州島 海村의 社會的 生業的 宗教的 構造로 보아 巫俗은 그들의 生活에 現在는 勿論 앞으로도 적잖은 機能을 하며 存續할 것을 豫測하게 된다.

그러므로, 巫俗의 打破 乃至 改善의 문제를 思考함에 있어서도 漁撈技術의 科學化, 現代 醫學의 徹저한 普及, 그리고 女性의 教育水準의 向上 등을 先行시키고 高級宗教의 普及 및 價值觀의 變革을 試圖해야 하리라 생각 된다.

② 巫俗과 村民의 經濟

巫俗이 濟州島의 海村社會에 絕對的인 比重으로 現時 機能하고 있고, 年間 68%의 世帶가 巫俗행사를 했음을 위에서 말했다. 그러면 朴촌과 용담 兩里의 경우, 이만한 의례 實修에 얼마만한 經費가 所要되며, 그것은 村民의 經濟에 얼마만큼 影響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일은 巫俗을 迷信打破의 첫째 對象으로 삼고, 打破에 힘쓰는 오늘날, 그것의 迷信性 判斷 및 行政的 施策의 樹立에도 한 資料가 된다. 예

나하면 迷信이란 非科學의이니, 非合理的이라는 常識의 基準에서 그 概念을 規定할 수는 없고, 그것이 우리의 社會生活에 얼마만큼의 甚한 實害를 끼치고 있느냐를 보아 限界線을 그어야 하리 때문이다.

巫俗儀禮의 所要經費를 正確히 統計해 내기란 힘든 일이다. 같은 種類의 의례라도 집안의 經濟事情, 巫覡의 要求差, 地域的 차이등에 따라 그 所要額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마을안의 한 巫覡의 경우는 大概 共通的인 報酬限界額이 있고, 제물의 準備等도 어느 程度 共同性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북촌, 용담兩里 巫覡들이 말하는 의례별 所要額數(準備物代, 報酬, 원맹세, 인경등의 合計金)의 平均額을 의례별 件當 所要額으로 삼아 全体所要經費를 推算하여 보았다.

그 結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具體的인 計算內譯을 紙面關係로 省略함)

祈子儀式~북촌 42,000원, 용담0원, 出生儀式~북촌 2,250원, 용담 1,000원, 撫魂儀式~북촌 68,800원, 용담 49,500원, 治療儀式~북촌 148,830원, 용담 232,450원, 豐漁進慶儀式~북촌 5,200원 용담16,900원, 造船豐漁儀式 북촌 129,600원, 용담 28,800원 新築儀式~북촌 28,500원 용담 5,700원, 運輸進慶儀式~북촌 0원, 용담 3,400원, 長壽進慶儀式~북촌 3,000원, 용담 0원, 新年進慶儀式~북촌 242,200원, 용담 85,550원, 豫祝進慶儀式~북촌 37,500원, 용담 137,500원, 豫祝撫魂儀式~북촌 0원 용담 51,500원, 村祭(당굿)~북촌 69,600원, 용담 16,800원 所費라는 計算이 된다.

그래서 北村에선 全体 777,480원을, 용담에선 628,800원을 무속의례를 위해서 1年間に 所要한 셈이 된다. 이 額數를 무속의례를 한 世帶~북촌 175世帶, 용담 60世帶에 나누고 보면 북촌에선 1世帶當 平均 4,443원을 용담에선 10,463원을 年間 所費한 셈이다. 그리고 兩里平均을 내어보면 世帶當 平均 5,984원을 1年間に 所費한 셈이 되는데, 이 推算額數를 보아

도 작은 額數라 할 수는 없다.

이런엔 그들의 年間 收入과 이 所費를 잠깐 比較해 보기로 하자.

便宜上 北村의 경우를 보면, 이 마을의 住民은 4世帶를 除外하면 모두 평균 2,241坪의 農地를 所有하고 (表2-6參照) 農事를 짓는다. 그래서 이 農業으로 中山村 처럼 生計를 自給自足하고, 海上 漁業의 收入은 中山村에 比하면 剩餘收入이 되는 셈이다. 이 海上收入中 집집마다 있는 海女들의 年間 收入을 推算해 보면 <表6-17>과 같다. 곧 마을 全体로 年間 6,277,300원을 海女들이 벌어드리는 셈인데, 이를 250世帶에 나누어 보면 1世帶當 25,109원이 된다. 이 海女の 收入과 儀禮經費 所要額을 比較해 보면 마을 全体로는 海女收入의 12.4%를 무속의례에 所費하고 世帶別로 보면 17.3%를 年間 無속의례에 所費하고 있는 셈이 된다.

(表6-17) 北村里 年間 海女收入 推算

採取物	收穫量	單價	金額	備考
미역	20,000斤	113원	2,260,000원	1968年度 組合契約量 單價는 生産者 支給額
전복	1,600貫	1,250원	1,875,000원	"
소라	20,000貫	62원50전	1,250,000원	"
꽃	30,000斤	15원41전	462,300원	"
天草	1,000斤	120원	120,000원	1967年度 販賣量 單價는 生産者 支給額
감태	40,000斤	4원	160,000원	"
뽕복	100,000斤	1원50전	150,000원	"
計			6,277,300원	

北村과 같이 海上의 副收入이 많은 村落에선 그들의 精神的 安慰를 위해서 그리 큰 額數의 所費라고 할 수 없지만, 용담이나 其他別 收入이 적은 村落의 경우는 하찮은 所費라고 보아 넘길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所費가 村落의 經濟에 크게 打擊을 줄만큼 影響하는 것은 아니다.

4. 巫 覡

巫俗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神靈과 信仰民인 顧客이 巫覡의 의례집행을 통하여 交渉하는 習俗이기 까닭에, 무속의례를 行하려면 반드시 巫覡이 있게 마련이다. 濟州島 巫覡의 一般的인 概觀은 拙考「濟州島의 巫覡」⁷⁾으로 밀우고, 여기서는 北村과 龍潭의 巫覡에 대하여 그들의 生活과 婚姻을 中心으로 記述해 두고자 한다.

(1) 巫覡의 社會生活

巫覡을 濟州島에선 神房이라 한다.

現在 北村에는 6名의 神房이 있고, 용담에는 3名의 神房이 있어 村落의 의례 需要에 당하고 있다.

北村의 神房은 朴仁洙 男 48歲, 그의 後妻女 47歲, 李某 女 52歲, 尹某 女 60歲, 某 女 31歲, 某 女 年令未詳, 6名이고, 용담의 神房은 安仕仁 男 39歲, 그의 姑母 安順心 女 49歲, 朴某 女 44歲, 3名이다.

이들은 通稱 神房이라 불리우지만 무슨 굿이든 척척해 넘길 수 있는 큰 神房은 北村에 朴仁洙氏, 용담엔 安仕仁氏 뿐이다. 다른 신방들은 작은 굿이나 비넛類를 하거나, 큰 굿의 一部 祭次의 分担 執行이나 樂巫役을 할 수 있는 小巫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큰 신방과 구름이 되어 따라 다니거나, 작은 비넛類의 의례를 맡아서 그 報酬로 生活한다.

北村의 큰 신방 朴仁洙氏는 本來 巫系家門이 아니었다. 그의 祖父는 漢學에 能한 分으로, 19歲때 珍島에서 濟州에 移住하여 朝天面 善乾里, 西歸邑 肚坪里 등에서 書堂의 師長을 했었다. 그런데 朴氏가 5歲때에 父親을 여의고 母親이 改家하여 멀리 淸津으로 가버리자, 祖母 밑에 養育하고 있었는데, 7歲때 祖母마저 死亡하여 四顧無親의 孤兒가 되었다. 그래서 7歲때에 當時 北村 本鄉堂의 메인 神房이었던 鄭氏 어머님에 收養되어 자라고 그녀에게서 巫業을 배워 繼承하고 신방이 되었다. 따라서 그는 現在 北

村堂의 매인 신방이다. 매인 신방이란 그 堂을 맡아 지키고 그당의 의례를 專担하는 巫覡이며, 他巫는 그 堂의 의례를 맡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朴氏는 朝天面 大屹里 巫系家門의 金海金氏와 結婚하여 膝下에 4男 2女를 두고, 다시 濟州市 禾北里 巫系家門인 南陽洪氏를 後妻로 맞았다. 長男은 高校를 卒業했고 次男 以下는 모두 在學中이다. 前妻 金氏는 이 子息들을 거느려 이웃마을인 舊左面 東廟里에 혼자 살며 굿이 있을 때마다 男便을 따라 굿하러 다니고, 千余坪의 農地에 農事를 지으며 기와집에 산다.

한편, 男便인 朴氏는 北村의 二間草家에 後妻와 같이 살며 巫業의 收入으로 生計를 한다.

큰 굿을 하려면 首神房 外에 4·5人의 小巫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朴氏는 큰 굿을 맡으면 그의 妻 金氏, 後妻 洪, 그리고 조카(兄의 아들) 朴信平氏와 그 外 洞里신방 1人이 한 구름이 되어 다닌다. 一種의 巫團 樣式한 것이다.

신방은 巫에게 계의 집행을 全担的으로 依賴하는 洞里信仰民들을 <단골>이라 부르고, 그 信仰民은 그 신방을 <단골신방>이라 한다.

朴仁洙氏는 굿을 잘하는 신방이어서 단골이 많다. 그의 단골은 北村內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外里에도 있다. 一般的으로 굿은 洞里 단골신방에게 맡기는 것이 原則같이 되어 있지만, 반드시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굿잘하는 신방을 찾아 依賴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朴氏는 濟州市, 城山面, 西歸邑에까지 굿을 맡아 하러 다닌다. 따라서 그의 巫業收入은 꽤 많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굿을 가장 많이한 해는 큰 22個處, 작은 13個處를 했단다. 그 收入은 現金 270,000원 보릿쌀 100余斗, 白米 100余斗(以上 小斗) 廣木 20余통을 벌기도 했었지만, 夫婦가 7年間 阿片을 맞다 보니 財産을 탕진해 버렸다 한다. 지금은 阿片을 끊었지만 그래서 生活가

困窮하다.

〈단골〉은 〈신중아기〉로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신중아기〉로 맺어 진 단골은 그 관계가 거의 不動이다. 〈신중아기란 子息 기르기가 힘든 집안에서 子息을 신방에게 收養시켜 長壽토록 하는 아이를 말한다. 신방의 生子와 이 收養子의 區別은 前者를 〈당주아기〉 또는 〈명두아기〉라 하고, 後者를 〈신중아기〉라 하여 區別한다.

처음 이 〈신중아기〉를 收養시킬 때는 그 아이의 生父母가 아이의 生年月日을 記入해다 신방에게 맡기고 巫祖神에게 제의를 하여 〈신중아기〉로 收養시킴을 告한다. 이때 收養神房의 選擇은 아기와 生氣가 맞는 신방을 골라 찾아오는 것이니, 매우 먼곳에서 찾아드는 〈신중아기〉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朴氏의 경우는 〈신중아기〉가 셋이 있는데, 하나는 이웃 마을인 東福里의 아이고, 하나는 멀리 濟州市內의 아이며, 또 하나는 더 멀리 떨어진 牛島의 아이다.

이렇게 收養契約이 맺어지면 그 〈신중아기〉는 신방을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고, 그 生父母와 신방사이엔 兄弟間이 되어 〈형님, 동생〉이라 부르며, 신방집에 大事가 있을 때는 生父母나 親兄弟間처럼 찾아와 서로 돕는다.

收養이라고 하지만, 신방이 그 아이를 그의 집에 데려다 기르는 것은 아니고 如前히 生父母의 膝下에서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신방은 이〈신중아기〉를 항상 자식처럼 걱정하여 돌아보며, 病이나면 15歲까지만 잘 키워 달라고 신께 축원해 주고, 雜鬼를 풀어주곤 한다.

또 신방집에서는 陰 9月 8日, 18日, 28日에 定期的으로 무조신에 대한 굿을 하는데, 이때 신중아기의 生父母들이 그의 쌀을 가지고 와서 굿하는 신방들에게 밥을 해먹이고, 〈신중아기〉는 신방처럼 송낙(고깔)을 쓰고 신방과 더불어 拜禮와 헌작을 하곤 한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婚姻을 하게 되면 신방은 幣帛으로 무명을 사준이 一般이며, 다 자라서 찾아갈 때는 신방에게 謝禮 金條로 千圓 程度를 주고 데려간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맺어진 後로는 그〈신증아기〉의 집안에선 이 신방에 의례집행을 專担的으로 依賴하게 된다. 이〈신증아기 制〉가 바로 단골制 形成의 起源은 아니지만, 단골制의 一現象으로서 생생히 남아 있는 것이다.

단골들은 집안에 凶事가 發生했을 때는 곧 신방을 찾아가 議論을 하고 신방집의 무제나 大事에는 扶助를 하고 勞力의 協助를 해준다. 이렇게 그들의 宗教生活面에서는 신방이 尊敬이라 할 수는 없지만 平等 以上の 待遇를 받지만, 社會生活面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內面的인 賤視가 있다. 朴仁珠氏의 경우를 보아도, 그는 마을의 行政的 產業的인 被動的 組織에 加入하여 그 義務와 權利를 行使하나, 〈鄉會〉〈산담契〉〈계〉〈親睦契〉등 自發的 村落組織에는 全然 加入이 되어 있질 않다. 村民의 말에 依하면 朴氏가 親睦契에 加入시켜 달라고 하지만 어떤지 이상한것 같아 加入시키지 않았다고 하며, 鄉會에서 管理하는 포제 때에도 參加하는 일야 없고, 다만 술헌병쯤 들고 가서 계관들에게 人事를 하고 나오는 程度라고 한다. 被動的 組織에의 活動도 義務的으로 加入하는 程度이며, 集會에서 한번의 發言을 하는 일이 없다. 發言을 하더라도 里民이 따라주지를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里民은 신방을 부를때 〈朴兄〉 또는 〈누구네 아버지〉라 부르고, 이웃 洞의 相扶相助도 同等하게 하여 人間差別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外面上 賤待하지는 않으나, 內面으로는 모두 賤視하여, 事實上 신방들은 村落社會에서 下層階級으로 孤立되어 있는 實情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階級的 差別觀念은 점점 變하고 있음이 事實이지만 完全拂拭되기에 相當한 時日이 걸릴것이라 생각된다.

용담의 큰 신방 安仕仁氏는 22代를 繼承한 신방이다. 그의 家系는 本來 巫系가 아니었으나, 그의 曾祖가 19代를 繼承한 舊左面 下道里 高氏의 美貌에 반하여 婚姻하자, 그 巫業을 이어받게 되어 신방이 되고 22代 世襲巫가 된 것이다. 그는 日帝時 國民學校를 卒業했고 濟州市 梨湖里 金氏와 婚姻하여 膝下에 二男 三男을 두고 있는데 長男이 國民學校 在學中이

다. 그의 妻 金氏는 非巫系의 良家의 딸인데, 4·3 暴動事件에 困境에 빠진 것을 安氏가 도와주자, 그게 因緣이 되어 혼인하게 됐다. 따라서 그의 妻는 지금도 굿을 할 줄 몰라 男便의 뒷 심부름만을 한다.

安氏는 三間草家에 兼業이 없이 純巫業 收入으로 살아간다. 굿을 잘한다고 所聞난 신방이어서 그 收入이 相當히 많으나, 數年동안 보아도 生計가 별로 進展하는 것 같지가 않다. 阿片을 한다는 所聞이 널리 퍼진 것으로 보아 그것에 所費가 많기 때문이라 보인다. 島內 巫覡을 많이 對面해 본 바로 阿片하는 신방이 그리 많은 數는 아닌데, 이 兩村의 首神房들은 公교롭게 모두 過去에 阿片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安氏도 이 마을 本鄉堂인 <코스락당>의 메인 신방이며 단골도 많다. 그는 굿을 하러 다닐 때는 이웃에 1男을 거느리고 사는 姑母 安順心과, 형이 다른 姑母 高花玉氏, 그리고 朝天面 朝天里에 居住하는 姑母 安春子, 姑母夫 鄭周柄氏 등이 一團이 되어 다닌다. 그에게는 <산중아기> 등이 없고, 社會生活面의 村落에서의 位置는 北村의 朴仁珠氏와 비슷하다. 어디서나 신방은 內面的 賤視를 받고, 村落社會에서 孤立되어 그들대로의 다른 集團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2) 巫覡의 婚姻

신방의 社會生活面의 內面的 賤視는 그들의 婚姻關係를 呑으로서도 알게 된다.

北村里의 堂神話에서 그 당을 메어온 신방들의 死靈을 慰撫하는 대목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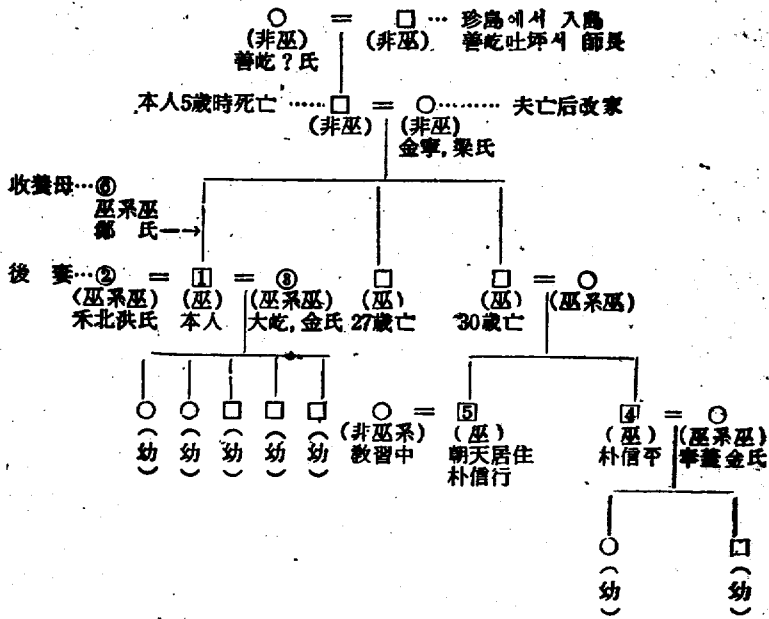
...꿈生하여 三年, 애써어 三年, 아기없는 불쌍한 丁女들, 쌍놈이라 해서 兩班하고 사둔 못하고, 신방들 끼리는 親族이라 못하고, 아기 낳아도 팔아(結婚시킴)보지 못하고, 家屬없어 일지 못하고, 홀로 獨身 崔氏 동생 李씨 동생 또 강씨동생...

朴仁珠氏 口誦(標準語로 바꾼것임)

이 귀절을 보아도 그들의 혼인 관계와 社會的 地位를 容易 결국할 수 있지만 여기서 實際로 그들의 혼인 관계를 보기로 하자.

먼저 北村 남부 朴仁洙씨의 家系부터 몇 개의 關聯된 家門의 혼인 관계를 보아 나가고자 하는데, 朴仁洙씨의 가문의 혼인 관계를 보면 <表6-18>과 같다.

<表6-18> 北村 男巫 朴仁洙氏 家系婚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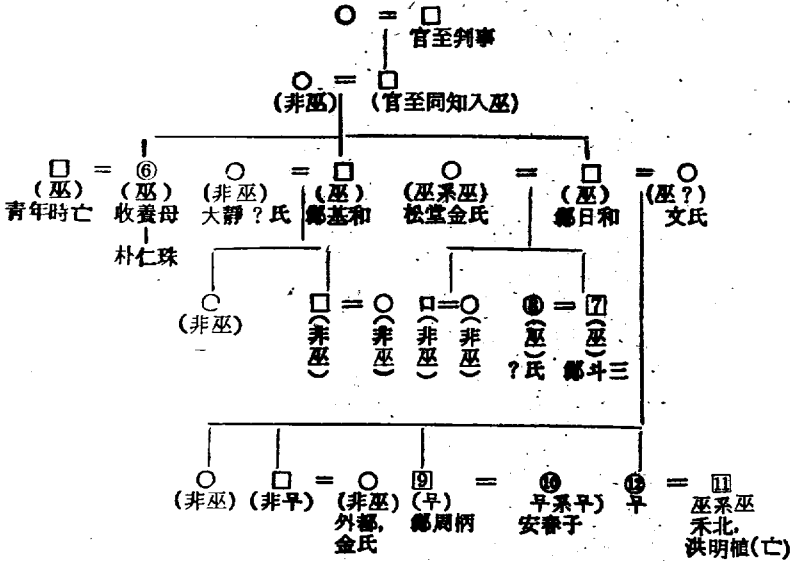


이 表가 보이는 바와 같이, 그는 妻가 둘인데 모두 巫系의 女巫를 妻로 맞았고, 그의 兄남은 그의 收養母 鄭씨 어머니의 집안인 朝天面 新村里 남부 鄭斗三씨의 六寸妹와 혼인하고 있다. 다만 지금 25歲인 조카 朴信行 씨만이 非巫系와 혼인을 하고 있어, 巫系家門은 巫系家門끼리 혼인을 맺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은 그의 收養母의 鄭씨 집안을 보면 <表6-19>와 같다.

<表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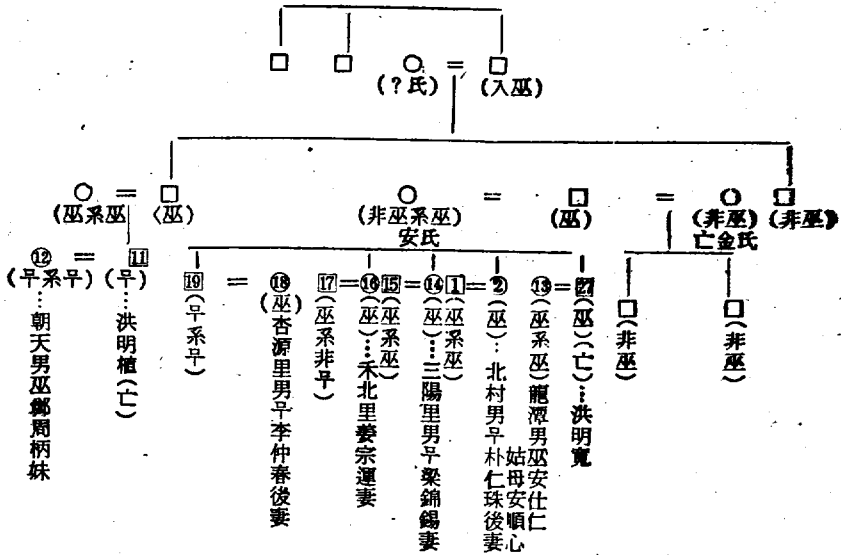
朴仁珠氏 收養母 鄭氏 · 朝天 男巫 鄭斗三氏 家系婚續



이 집안은 收養母 鄭씨의 祖父가 처음 신방이 되면서 巫系家門이 되었다. 鄭씨의 曾祖는 官이 判事에 이르렀고 祖는 同知 벼슬을 했었는데, 어느날 有名한 地官이 鄭判事의 墓를 보고 무당이 날자리에 묻었다고 하니, 過然 아들 鄭同知가 벼슬을 하면서 무당질을 했다고 傳한다.

이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朴仁珠씨의 收養母 鄭씨의 3남매는 父系들이어 받아 모두 巫業을 했으며, 그 아랫대에 와선 2人만이 巫業을 繼承했고, 신방이된 者는 모두 巫系의 무와 혼인하였다. 表의 ㉠ 鄭周柄씨의 妻 安養子씨는 다음의 <表6-22>에 圖示된 용담리 남부 安仕仁씨의 高모요, ㉡ 鄭周柄씨의 妹夫人 ㉢ 洪明植씨는 <表6-20>에서 보는 바와같이 朴仁珠씨의 後妻의 四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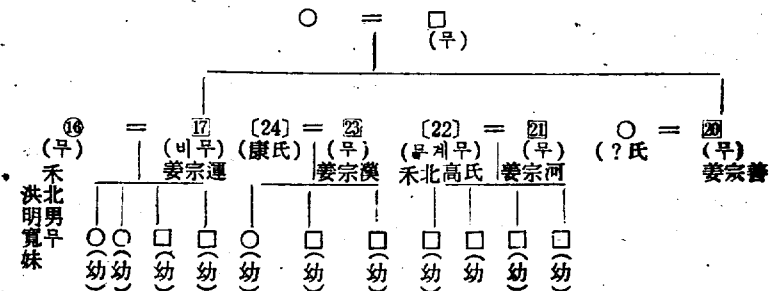
〈表6-20〉 禾北男巫 洪明植 朴仁珠後妻 家系婚姻



〈表6 20〉 朴仁珠의 後妻의 가문에서 보면 朴씨의 後妻의 兄弟들은 모두 巫系의 남무와 혼인하고 있고, 그의 처남 洪明寬씨는 용담 남무 安仕仁씨의 고모와 혼인을 맺고 있어, 朝天里 남무 鄭周柄씨와 查頓關係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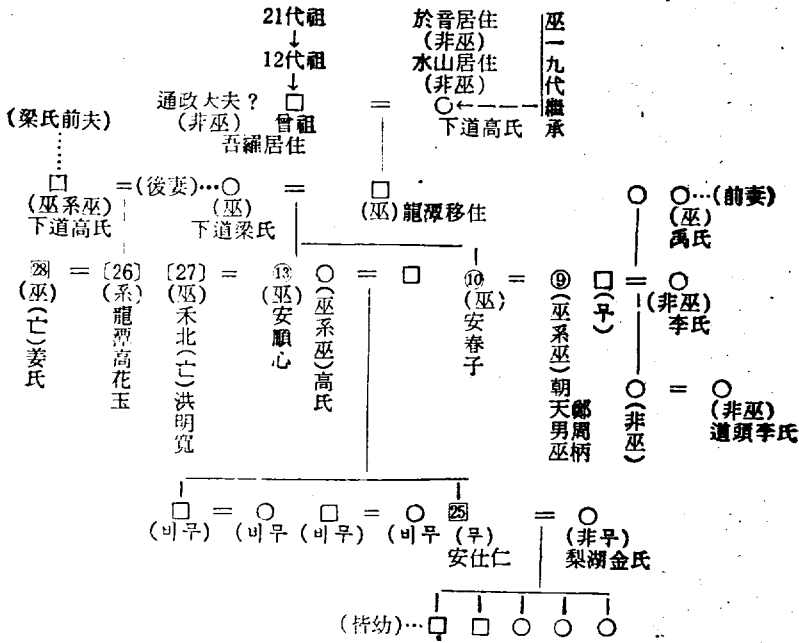
그리고 洪明寬씨의 妹夫 姜宗運씨 가문의 婚姻關係를 보면 〈表6-21〉과 같고, 용담리 남무 安仕仁씨의 家系를 보면 〈表6-22〉와 같다.

〈表6-21〉 禾北 男巫 姜宗河氏 家系婚姻



〈表6-22〉

龍潭 男巫 安仕仁氏 家系婚姻



이미 말한 바와 같이 安仕仁씨는 4·3事件의 混亂期에 非巫系 金奇峯 婚姻하였지만, 그의 姑母들은 ⑩=⑪, ㉖=⑳, ㉗=㉘와 같이 모두 巫系 男巫와 혼인하고 있다.

以上, 5個 巫系家門의 入巫者와 그 婚姻關係를 表로 整理하고 보면 〈表6-23〉과 같다.

이 表가 보이듯이, 아들들은 75%가 巫業을 繼承하고, 딸들은 69.2%가, 그리고 며느리는 59.3%가 各各 巫業을 이어받아 하고 있는데, 이들의 婚姻 關係를 보면 아들들은 61.6%가 巫系巫를 妻로 맞이했고, 딸들은 75%가 巫系 男巫를 夫로 맞이하고 있다. 非巫系 가문과 婚姻을 맺는 일은 近來의 日甚을 생각할 때, 巫家系는 巫家系끼리 階級的 內婚을 하

〈表6-23〉

入巫者 및 婚姻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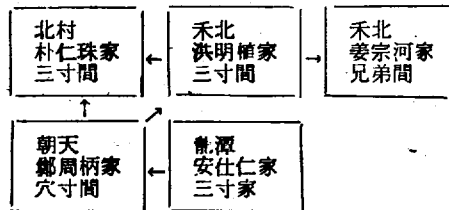
家門	世襲	世襲入巫者			婚姻關係			
		子	女	婦	巫系妻	非巫系妻	巫系夫	非巫系夫
北村 朴仁珠	2代 收養母系	5中5		5中4	4	1		
朝天 鄭斗三	4代 父系	7中5	不明1 5中2	7中3	3	不明1 3	2	1
禾北 洪明植	3代 父系	7中4	5中4	5中4	3	2	4	
禾北 姜宗河	2代 父系	4中3		不明2 4中2	2	2		
龍潭 安仕仁	19代母系 →3代父系	5中4	4中3	6中3	4	2	3	3
計		28中21	不明1 13中9	不明2 27中16	16	不明1 10	9	3
%		%	%	%	%	%	%	%
		75.0	69.2	59.3	61.6	38.4	75.0	25.0

코 또 氏族의 外婚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5個 巫家의 相互 婚姻關係를 表로 보이며 〈表6-24〉와 같이 簡明化할 수 있다. 여기에서 6쌍의 婚姻이 맺어지고 있음을 보며, 이러한 婚姻關係의 因緣들은 그들의 굿하러 다니는 구름(巫團)을 形成시키는 基礎가 되고 있음도 理解된다. 또 이러한 婚姻關係는 그들의 社會的 地位의 低級性을 아울러 말해주는 것이다.

〈表6-24〉

五個巫家의 婚姻關係



※ 票는 女가 栗方向의 家門에 시집갔음을 말함

綜 合

한마디로 말해서, 濱州島 海村의 信仰은 남성의 儒敎의 信仰과 女性의 巫俗의 信仰의 二重構造를 이루고 있다.

佛敎, 天主教, 天理敎, 天地大安敎등 既成宗敎 乃至 新興宗敎를 信仰하는 世帶가 있기는 하나, 그것은 不過 14.4%밖에 아니되며, 이 信仰世帶들도 1.8%에 해당하는 天主教 信仰世帶를 除外하면 모두 儒式儀禮나 巫式 儀禮를 兼行하는, 儒巫混 의 信仰世帶들이다. 따라서 이들 既成宗敎는 村民의 정신생활에 이렇다할 作用을 못하고, 儒, 巫 兩敎가 男女 兩社會에 二重構造로써 그들의 精神生活을 支配하고 있음을 理解할 수 있다.

村民의 二重의 信仰構造는 그 祭儀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남성들은 儒敎의 崇祖祭와 儒式의 村祭(酬祭)등을 嚴肅히 舉行함으로써 그들의 宗敎心意를 依支하고 女性들은 巫俗의 祭儀에서 慰安을 얻는다. 그러나, 남성이 主管하는 儒式祭儀도 崇祖祭에 있어서의 門神祭, 村祭(酬祭)에 있어서의 雜神에 대한 土俗의 儀禮나 巫祭의 儒式化 儀禮를 무속성 乃至 土俗性을 그대로 維持하고 있다. 이는 亦은 무속이 基層信仰임을 말해주는 동시에 남성사회의 儒敎信仰이 儒·巫混 의 것임을 理解하게 된다.

무속신앙은 남성의 干涉을 크게 받지 않은 女性 獨自의 信仰으로서 年間 68%의 世帶가 儀禮行事를 하는 絕對的 比重的 海村信仰이다. 그 외에는 疾病, 死亡, 豐漁, 造船, 新築등 機會에 많이 行해지고 특히 海女採取物의 豐登을 위한 村祭가 盛況하여 그들의 村組織과 生業構造와 密着되어 있음을 理解케 한다.

또한 村落에는 村落守護神인 堂神이 있는데, 그 신들이 漁撈, 造船, 바람동 바다와 깊은 關係의 性格을 띠고 있어, 그들의 生業構造를 反映한다.

村落의 堂에는 그 儀禮를 世襲 專担하는 巫覡이 있다. 그들은 村民에게

內面的 賤視를 받고 있어 下層階級에 屬하며 氏族의 外婚과 階級的 內婚을 한다. 이러한 婚姻關係에서 4·5人씩의 集團이 形成되고 그 集團이 共同으로 村民의 儀禮 需要에 當하고 있다.

그리고, 男性主管의 儒式儀禮나 女性主管의 巫式儀禮나 모두 該村民의 社會的 精神的 紐帶를 強化하고 村落共同體의 結束에 適當은 機能을 하고 있음을 指摘할 수 있다.

이러한 一連의 現象들은 濟州島 海村이 近代化의 強要속에서 葛藤과 離離를 거듭하면서 아직도 傳統的인 在來 文化類型을 保守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 註 ＝

- 4) 굿의 形式이나 內容에 대해서는 拙考「濟州島의 巫俗儀禮」韓國言語文學 3輯PP, 45~61參照
- 5) 拙考「濟州島의 門祭의 由來」제주시 3號 PP, 69~72參照
- 6) 註4參照
- 7) 拙考 濟州島의 巫魂濟大學報7號 PP, 159~184參照